

# 제6회 현구문학상에 박현덕 시인, 김옥애 작가 선정

### 시상식 24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 각각 상금 1,000만원

한국 현대시의 거장 김현구 시인의 문학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6회 현구문학상의 수상자로 박현덕 시인(사진 왼쪽)과 김옥애 동화작가가 각각 선정됐다.

제6회 현구문학상은 운문과 산문 부문별로 나눠 진행했다.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최종 수상 후보작에 오른 두 작품을 인준하기로 결정했다. 운문부문에는 박현덕 시인의 '와온에 와 너를 만나다', 산문분야에는 김옥애 작가의 '경무대로 간 해수'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박현덕 시인은 오랫동안 한국 현대시의 서정을 탐구하며 지역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와온에 와 너를 만나다'는 작품은 남해안의 바닷마을 '와온'의 풍경과 그 속에서 빛어지는 만남의 여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따스한 감성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옥애 동화작가는 오랜 기간 아동문학과 동화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며 따스한 감성과 깊이 있는 서사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수상작 '무대로 간 해수' 1949년 강진 앞바다에 나타난 붉은 바다거북을 통해 인간의 헛된 욕심과 생명의 소중함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현구 김현 시인은 1904년 11월 30일 강진에서 태어나 영광 김윤식, 박용철, 정지용 등과 1930년대 활동했던 시문학과 동인이다. 1930년 '시문학' 2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벌인 현구는 '문예월간'(1931), '문학'(1934) 필진으로 참여해 한국 시문학사를 풍요롭게 한 인물이다. 그는 생애 85편의 시 작품을 남긴 채 1950년 6·25 참화로 불운하게 생을 마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제6회 현구문학상을 통해 훌륭한 작품과 작가분들을 우리 강진에 모실 수 있어 더없이 기쁘고 붉은 바다거북을 통해 인간의 헛된 욕심과 생명의 소중함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 뜻한 행복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6회 현구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행사에 앞서 수상자인 박현덕 시인과 김옥애 작가의 사인회가 열려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어 시상식과 함께 국악공연, 현구시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광양경제청, 신규 전입 직원 현장견학 실시

###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 탐방으로 직원 업무 몰입도 강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청)은 9월 4일, 2025년 하반기 신규 전입 직원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지구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신규 전입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광양경제청의 주요 사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업무 몰입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와 보고서로 접하던 개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규 전입 직원들은 해룡산단을 시작으로 율촌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대송산단 등을 둘러보며 각 지구의 개발계획과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했다. 직원들은 "숫자뿐만 아니라 개발 현황을 직접 보니 전남과 경남이 함께 하는 광

양만권 산업단지 조성에 동참한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남 여수·순천·광양과 경남 하동 일원에 걸쳐 6개 특화지구를 지정해 17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항공·물류, 관광레저 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견학을 통해 직원들이 현장의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HD현대삼호, 대불산단 일원서 대규모 안전캠페인

### 산단 내 60여개사 참여, 대형 애드벌룬 이용 안전의식 고취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사외협력사와 함께 대규모 안전캠페인을 전개하며 중대재해 척결의 의지를 다졌다.

HD현대삼호는 지난 4일 출근시간을 기해 대불산단 일원에서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마린텍 등 산단 내 사외협력사 60여 개사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불산단 사외협력사 합동 안전캠페인'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행사는 안전결의대회와 각 사별 출근길 안전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캠페인에 앞서 대불천연지구장에서 열린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중대재해 척결을 다짐하는 의식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중장비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애드벌룬 아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무재해 작업장 조성 의지를 다졌다.

이후 각 회사별로 이동해 안전 문구가 적힌 현수막, 어깨띠 등을 들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HD현대삼호협력회사협의회 김용환 회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기업 생존 차원에서 중대재해 척결을 위해 회원사 모두가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을 사장은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회사와 협력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한 몸처럼 대응해 무



HD현대삼호는 지난 4일 대불천연지구장에서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마린텍 등 산단 내 사외협력사 60여 개사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불산단 사외협력사 합동 안전캠페인'을 개최했다.

재해 작업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삼호는 안전을 회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AI와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위험 작업에 자동화 장비 및 로봇 투입 등 투자 확대를 통해 무재해 작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양/김희선 기자

## 함평군가족센터, 폭우 피해 성금 342만5천 원 기탁

### 다문화가족·임직원 100여 명 자발적 참여... 따뜻한 나눔 실천

전남 함평군가족센터(센터장 김기영)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함평군은 5일 "함평군가족센터가 지난 3일 수해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342만5천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작은 손길, 함께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센터 임직원 100여 명이 피해 주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김기영 함평군가족센터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뜻깊은 나눔에 동참해 주신 가족센터와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수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왼쪽부터 윤성태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함평군가족센터장, 이상의 함평군수, 김창문 함평군새마을회회장, 김현희 함평군가족센터 사무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연대와 다. 상생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

함평/전광훈 기자



## 순천시 월등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두 번째 반찬 나눔

순천시 월등면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김동철)는 지난 4일 관내 지원이 필요한 120세대를 대상으로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돼지고기 장조림, 도라지 무침, 미역줄기 볶음 등 6가지 반찬을 직접 조리해 전달했다. 재료 구입부터 손질, 조리, 배달까지 위원들의 정성이 담긴 손길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단순한 반찬 전달을 넘어

다. 마중물보장협의체는 매년 김장김치 나눔, 어르신 생신상 챙기기, 명절 쌀 나눔 등 다양한 지역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내년에는 월등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장학금 지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활기찬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위원장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월등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